

한국 생활협동조합의 특성

정은미*

Key words: 생활협동조합(consumers cooperative), 유기농산물(organic farm products), 직거래운동(direct-deal movement), 소비자운동(comsumer movement)

ABSTRACT

Consumers' cooperatives (hereafter CC) in Korea were started from the organic farm products direct-deal movement among farmers and consumers in the late 1980s. This was possible by the already present organic farm movement in the 1970s. This differs from the organic farm movements of Europe and Japan which were developed from the consumer movement seeking safe food.

This study focuses on the standpoint of CC in its development process from 1980s to now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Consumers Cooperative Solidarity(ICOOP) as an example. The standpoint and characteristics of CC in Korea are studied by analyz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distributive mechanism and organizing ability i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contents of essential working in ICOOP.

1. 서론
2. 생협의 전개과정
3. 생협의 현황
4. 생협의 특징: 한국생협연대의 사례
5. 생협운동의 과제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1970년대 녹색혁명으로 추진되

어 온 다투입 농법에 반발한 생산자들이 자주적인 실천으로 출발하였고 생산자가 직접 유기농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교육하면서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펼쳐왔다. 1987년 이후에는 도시지역에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담당하는 단체로 생협이 등장하고 여성단체,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이 설립주체가 되어 처음부터 유기농산물 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을 중점사업으로 펼쳤다.

생협의 직거래 사업은 정농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등 유기농업생산자단체의 회원과, 농민운동에서 시작된 한살림, 여성운동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노동운동에서 지역운동으로 전환한 활동가들의 지역생협 등 다양한 운동주체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 단체는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명운동으로 인식하여 생협의 중심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생협을 이해하는데 유기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한 내용 없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협에 대해서는 현황과 사업, 운영 면을 소개한 논문과 생협법 제정 경과 및 의의, 생협운동의 조직적 전개 과정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생활공동체로서 생협이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¹ 그러나 어느 쪽도 생협이 왜 유기농산물을 취급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데다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과의 연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생협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생협은 소비자와 소비자의 사람들 간의 결합을 통해서 생활 속의 불편과 난관,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며, 생활상 제반 문제를 소비자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가운데 태어난 조

직이다. 따라서 생협은 우리 사회의 실정을 반영하여 변화·발전하였기에, 생협과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생협의 중심사업으로 성장해 온 유기농산물 유통사업이 친환경농업지원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생협운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협의 발전 과정을 유기농산물 유통사업과 조직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나아가 일본, 유럽 생협과의 차이를 밝혀낸다. 그리고 생협의 물류연합체인 (사)한국생협연대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운동으로서 생협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생협의 전개과정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중심사업으로 삼은 생협이 출현한 것은 1986년 한살림의 창립이다.² 생산자가 직거래를 담당했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이 70%대였으며 유기농산물이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인식보다는 유통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농산물을 싸게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란 인식에서 직거래가 이루어졌다. 한살림은 유기농산물을 도시와 농촌 사이를 잇는 매개체인 생명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가 상대방의 생활

¹ 생협의 현황과 사업에 대해 소개한 육영수·장원순과, 한국 생협법과 동향을 소개한 마루야마 시게키(丸山茂樹)의 논문이 있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연구에는 정규호(1994), 강수정(1999), 김정희(2001) 등의 논문이 있다.

² 한살림의 조직 형태는 협동조합이다. 생협법이 없었던 시대에 임의단체로는 불이익이 많았으므로 1994년에 사단법인으로 변경했으나 생협법 제정 이후 2003년에는 각 지역 한살림은 협동조합으로 재편성되었다.

을 위한다는 공동체의식을 중시하였다. 한 살림과 같은 생협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농산물의 시장개방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수입농산물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식품 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경계심과 관심은 높아졌다. 이와 함께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출현한 시민단체들은 식량자급률 저하와 식품안전을 우려하는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여 국내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 즉 친환경적이며 보다 안전한 농산물 거래로 생산

자와 소비자가 상호 협력할 것을 지향하여 생협을 창립하게 되었다.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제정되기까지 생협은 유기농산물을 공급하는 임의사업체로서 인식되어 왔으나 생협법 제정 이후는 소비자단체로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다. 생협의 전개 과정은 초창기, 과도기, 성장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표 1>은 3기의 특징적인 개요를 나타낸 것으로 이하 시기별 활동

표 1. 우리나라 생협의 전개 과정과 유기농산물 직거래

시기	주요내용	특징적인 활동내용	유기농산물 직거래
초창기 ① 1979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년, 농촌에 소협 탄생 • 1983년,(사)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 창립(농촌52조합 등 78조합) • 1985년, 도시지역 생협 등장 • 1986년, 한살림 설립 • 1988년, 대학생협 설립 • 1989년, 여성민우회생협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 태동과 그 의미의 변화 -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값싸게 판매’ → ‘생명가치를 중시한 유기농산물’을 강조하는 직거래(한살림의 등장에 의해) ○ 두레조직과 무점포방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직거래 - 생협 또는 생산자가 직접 농산물 수집, 배송, 판매를 담당
초창기 ② 1990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운동, 진보정치운동 등에서 지역생협 등장 • 1994년, 의료생협 설립 • 1994년,(사)생협중앙회에 물류사업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와 무점포방식 병행,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등 - 재정 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단체생협(주1)은 교육활동에 집중 - 지역생협(주2)은 생협의 경영 안정 때문에 직거래활동에 집중, 점포는 경영악화로 거의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직거래 - 취급품목 증가로 직원업무는 계속 늘어남 - 생협 경영악화의 최대 요인은 비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과도기 1997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물류사업 연합체 등장 - 생협운동의 분화(수도권사업연합회, 생협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 - 물류사업은 연합체에 집중, 단위생협은 각종 운영조직을 통해 지역단위의 다양한 활동 전개하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사업 규모화에 박차(연합회 발족, 물류사업 집중, 물류센터 건설)
성장기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01년, 생협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센터의 광역화, 네트워크화

주 1) 단체생협은 여성단체,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이 설립한 생협으로 생협 사업의 초기 단계에 단체시설을 이용하는 등 고정비용 부담이 지역생협보다는 적고 단체에서 훈련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사업실적 확보가 쉬운 편이었다.

주 2) 지역생협은 조합원 수십 명에서 출발하여 사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임대하는 등 부채 비율이 높은 경영구조로 경영수지를 위하여 사업실적을 높이는 게 최대의 어려움이었다.

출처: (사)생협전국연합회, (사)한살림, (사)생협수도권연합회, (사)한국생협연대 등 각 연합회의 연혁(각 단체 웹사이트 참조) 및 1999년, 2002년 실시한 각 생협 관계자 인터뷰 조사에 근거함.

내용 및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2.1. 초창기: 1979-96년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농협과 같은 생산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그리고 생협이 있다. 생산자협동조합은 1960년대부터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으며 정부의 말단기관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1989년 농협의 조합장 임명제가 조합원 직접투표에 의한 선거제로 바뀌었으나 현재에도 정부 시책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 신협은 1960년대에 종교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담보가 없어 용자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서민에게 용자사업을 행하는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직거래 및 재활용운동 등도 전개하여 왔다. 특히 1970년대에 영세농어민의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 농산물 직거래³이며, 이러한 신협의 활동을 근간으로 하여 조직된 생협도 많다.⁴

생협의 전신은 1979년 강원도 평창군에서 탄생한 신리소비자협동조합(소협)이다. 소협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농협이 적극 추진했던 공산품의 공동 구입과 농산물의 공

동출하를 전개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농가경제가 피폐해지고 농촌사회가 몰락함에 따라 농촌지역의 소협도 쇠퇴하였다(한국생협연대 2002, 31).

한편 도시에서는 주로 1980년대 후반에 생협이 출현하여 그 흐름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정은미1996, 21-28). <그림 1>은 생협의 출발과 관계된 운동조직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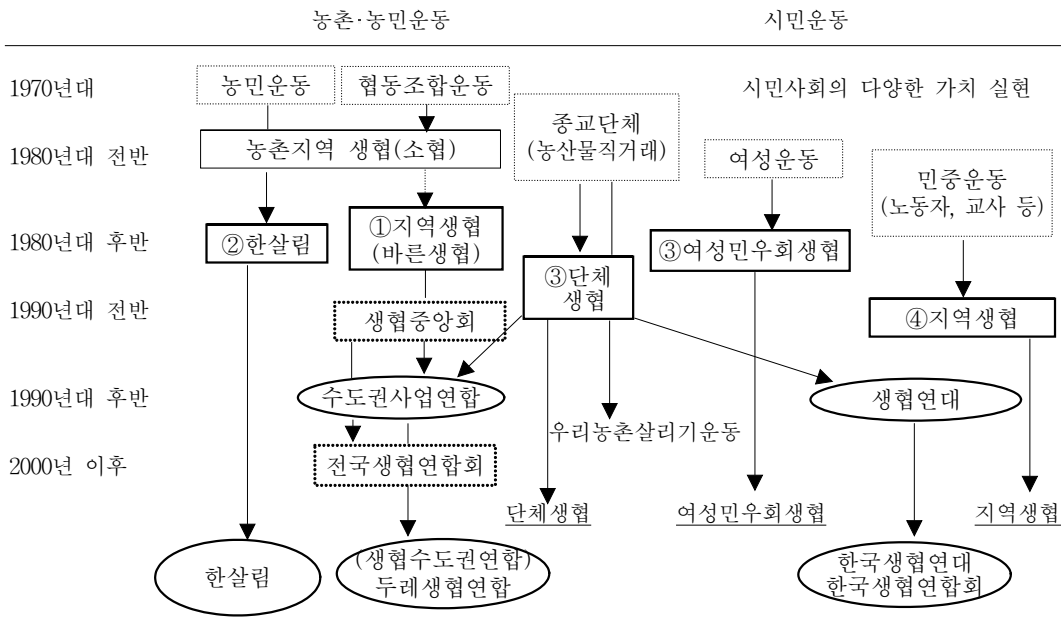
처음에 출현한 생협(그림 1의 ①)은 신협이 전개해 온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직거래(농촌 신협과 도시 신협 사이의 직거래)에서 탄생한 생협이다. 1985년 경기도 안양의 공동구매형 지역생협인 바른생협이 그 예이다. 두 번째 유형(그림 1의 ②)은 1986년 생명운동 사상을 지닌 농민 운동가들이 도시부에 매장을 개설하여 소비자를 조직한 한살림이다. 세 번째 유형(그림 1의 ③)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YMCA,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의 활동을 모체로 하여 설립된 단체생협이다. 네 번째 유형(그림 1의 ④)은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을 거친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지역생협이다. 이러한 생협 주체들의 성격이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는 목적과 방법의 차이에도 이어져 과도기에 출현한 생협 연합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⁵

³ 그러나 당시 신협으로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도부 안에서도 경제사업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79년에는 정부의 신협에 관한 경제사업의 억제정책에 의해 한 때 200여 조합이었던 신협의 경제사업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체되었다.

⁴ 신협은 1974년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경제사업(공동구매·판매, 공동 이용업무)을 시작하였다. 한국생협연대(2002), p.32.

⁵ 과도기에는 이 네 개의 유형 중 협동조합운동에서 생겨난 ①과, 종교단체에서 생겨난 ③의 일부가 수도권사업연합과 결합하고, 시민운동에서 생겨난 ④가 생협연대와 결합하였다. 전자가 1970년대부터 실천해 온 직거래운동을 이어 발전시켰다고 한다면, 후자는 민주화운동이

그림 1. 한국 생협 조직의 변천



주 1) 그림의 설명 ○:연합체, —:단위생협, —▶:영향
 2)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한국가톨릭농민회’와 도시지역 교회가 생협 등 정형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종교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이다.
 출처: 필자작성

도시지역 생협운동의 출현에는 다음 두 가지 요인이 큰 영향을 주었다. 첫째, 소비자의 수요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생산자에 의한 유기농업운동이며, 둘째, 일본 생협운동의 소개이다. 특히 일본 생협의 모델은 생협의 조직과 사업 면에서 우리나라 생협의 본보기로 인식되며 한살림과 그후 설립된 생협이 공동구입의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즉 유기농산물의 직거래 운동에 ‘조합원에게 사전에 주문을 받아 공동체 단위로 생활재를 공급한다’는 공동구

입 원칙을 도입한 생협이 출현하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유기농업 생산자는 판매 활동과 동시에 농산물이 지닌 생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들 생산자들이 판매를 위해 도시에 매장을 만들어 소비자를 조직하여 탄생한 그룹이 한살림이다. 또한 단체 생협이나 지역생협도 한살림의 영향으로 생명사상에 근거하여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변화하여 왔다.⁶

후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생겨난 조직으로 새로운 생활양식(생산양식, 소비양식 등)을 창조하기 위하여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실시하였다.

⁶ 유기농업운동에 ‘생명’의 개념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76년 창립한 ‘정농회’의 창립목적에 관한 다음 문장이다. “경천애인의 진리를 농업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 전 농토가 화학오염에서 벗어나 자연 순환 및 생태계의 질서를 보전하는 생명농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바라고 유기

다시 말하면, 생산자에 의한 유기농업 직거래운동이 먼저 있었고 이런 직거래운동의 방법으로서 소비자 생협이 생겨난 것이 우리나라 생협의 특징이다. 이는 처음부터 소비자운동에서 태어난 일본 및 유럽의 유기농업과 크게 다른 점이다.

생협의 전국조직은 1980년대부터 나타났다. 1983년 신협의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직거래운동을 전개해 온 도시지역 소협 및 농촌지역의 소협(52개 소협)등 약 76개 단협이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1990년 생협중앙회, 2002년 전국생협연합회로 변경, 이하 '생협중앙회'라고 함)을 설립한 것이다. 생협중앙회는 주요 사업으로 생협법 제정 활동, 생협 설립지원, 운영 및 경영지도, 협동조합 교육 추진, 공동구매사업, 국제교류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단협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된 생협중앙회는 단협의 회비만으로는 운영경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외국의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유지되고 있었다.⁷

농업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후, 생명사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1989년 시인 김지하가 참가하여 만든 '한살림선언'이며, 1990년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이라는 생협의 슬로건에서 나타나듯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중요한 이념이 되었다.

⁷ 생협중앙회는 네덜란드에 소재한 가톨릭사제회의 사회개발단(BILAMCE재단-전 CEBEMO재단)에서 교육, 홍보 및 생협 연구를 위한 활동비로서 67.6만 달러(1989년 5월~1998년 4월), 독일의 기독교 사회개발단(EZE)에서 18.5만 마르크(1990년 8월~1991년 7월)등, 1999년까지 총 7억2천만 원을 받았다. 출처: 한국생협연대(2002), p.37.

이 시기 생협의 유기농산물 유통 형태는 소규모의 직거래에 지나지 않아 생협이 유기농산물의 수집, 매입에서 배송까지 전부 담당하고 있었기에,⁸ 유통 경비의 고비용·비효율적인 구조가 유기농산물의 가격을 높여 소비자가 생협운동에 참가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이어졌다. 또한 당시는 생협이 소비자운동을 확대하려고 해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 안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유통사업 이외의 조직사업에 전념할 여유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생협의 경제사업인 유기농산물의 유통사업과 생협이 추구하고 있는 운동의 확대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지 그 해결방법의 차이를 두고 두 개의 사업연합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2.2. 과도기: 1997-98년

이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움직임은 물류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생협조직 활동의 정체성 문제를 새로운 물류연합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앞서 서술한 생협중앙회가 행하는 물류사업은 공동구매 물품의 배송 이외의 사업에는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렀기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큰 단협 입장에서 생협중앙회에 불만이 쌓여갔다.

따라서 합리적인 물류시스템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책과 방침이 가까운 단협끼리 사업연합체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태동하였다. 1997년에는 생협수도권사업연합회(1999년에 생협수도권연합회, 2005년 두레생협연합회로 명

⁸ 각 단위생협이 다수의 생산자 그룹과 직거래를 하면서 필요이상의 물류비가 발생하였다.

표 2. 생협연합체의 운영방식 비교

	수도권사업연합	생협연대
초기 조직구성	○일정 규모 이상인 단체생협들의 연합체 ○수도권지역 7개 생협	○소규모 지역생협의 연합체 ○수도권과 대전의 6개 생협
물품 취급 기준	○생협의 생활재는 안전, 양질, 적당한 가격	○서민도 이용 가능한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구성원 성격	○인재양성 및 자금지원의 면에서 일본의 생협과 관계가 깊은 그룹 ○소비자운동으로서 생협활동에 주목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시민운동 출신 ○지역운동, 대중운동으로서 생협활동에 주목
조직의 특징	○무점포사업(공동구입과 개인택배)와 점포사업을 병행 ○수도권지역 단협의 물류사업 연합체 ○단협은 물류사업과 조직활동 병행 ○연합체는 단협의 물류사업 보조 ○단협, 연합체의 수익: 유통마진	○무점포사업(공동구입과 개인택배) 위주 ○전국 단협의 물류사업 연합체 ○단협은 조직활동, 연합체는 물류사업으로 역할 분담(사업과 조직의 분리) ○전국 생산자와 지역생협의 네트워크 추진(전국에 물류망 확보) ○연합체의 수익: 유통마진 ○단협의 수익: 조합원이 매월 납입하는 조합비
물류 흐름	○생산지→물류센터→단협→조합원 <div style="text-align: center;"> 주문 주문 조합원 ↔ 단협 ↔ 연합회 공급 공급 </div>	○생산지→물류센터→조합원 <div style="text-align: center;"> 주문 주문 단협 ← 조합원 ↔ 연합회 조합비 공급 </div>

자료: 수도권사업연합 및 생협연대 관계자들 인터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칭 변경, 이 절에서는 수도권사업연합이라고 함)와 21세기생협연대(2001년에 한국생협연대로 명칭 변경, 이 절에서는 생협연대라고 함)가 설립되었다(마루야마 시게키 2000, 48).

<표 2>는 두 물류연합체를 비교한 내용이다. 이들은 물류사업의 효율화를 시도한 점에서는 같으나 조직의 이념, 물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수도권사업연합은 비교적 경영이 안정적인 단체생협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생협중앙회 물류사업부를 이어받았다. 소비자의 이익 옹호를 생협운동의 중심으로 삼고 물류센터 건설을 위해 일본 그린코프사업연합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등 일본 생협으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마루야마 시게키 2000, 50). 생활재 취급기준의 제1항은 ‘생협의 생활재는 안전하고 양질로 적당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도 취급하였다.⁹ 연합체는 단협이 행하는 물류사업을 보조하는 역

⁹ 2004년 생협수도권연합회 웹사이트(<http://ecoop.or.kr/rule.asp>), 생활재에 관한 기준원칙과 취급기준. 일반농산물 취급은 품목을 다양하게 갖추어 조합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한편으론 새로운 생활양식(생산양식, 소비양식 등)을 창조하기 위해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추진한다는 한국식 생협운동의 개념이 엮어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2005년 두레생협연합회로 명칭 개정 이후, 생활재에 관한 기준원칙과 취급기준 항목은 사라지고, 두레생협연합회의 소개란에는 ‘두레생협연합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역을 무대로, 생명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로 바뀌었다.

할(산지에서 매입, 물품구비 등)을 담당한다. 즉, 단협이 조합원의 주문을 집계하여 연합체에 주문하고 연합체는 단협에, 단협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구조이다(표 2의 물류흐름 참조).

한편, 생협연대는 소규모 지역생협이 중심이 되어 ‘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물품과 물류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어머니의 눈으로 조합원이 선정한 품목’을 내걸어 생산자와 소비자 쌍방에 유리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모색하였다(한국생협연대 2004, 1-4). 지금도 그렇지만 1997년 당시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은 고가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를 생협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므로 물류의 효율화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이 단협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조합비제도’(제4절 참조)를 도입했다(한국생협연대 2002, 127-129). 생협연대는 단협과 연합체가 일을 분담하여 단협은 생협운동의 조직운동에, 연합체는 물류사업에 집중하는 구조이다(표 2의 물류흐름 참조). 즉 조합원이 단협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합체에 주문해서 공급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상과 같이 이 시기 단협의 물류사업은 연합체로 집중하여 두 개의 물류연합체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물류효율화라는 동일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취급품목에 대한 견해 및 물류방식의 차이에 의해 그 시스템은 서로 달랐다.

2.3. 성장기: 1999년-현재

이 시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생협은 비로소 협동조합이란 법적 근거가 생겼다. 1999년 생협법 제정을 근거로, 이제까지 활약해 온 생협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생협법 제정은 소비자운동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통대책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생협법 제정에 대해서는 1990년부터 생협중앙회가 매년 법제정을 촉구해 왔으나 일반소매업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1998년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주요 사업으로 활동해 온 생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⁰ 생협법 제정의 결정적 역할로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알갭게도 생협법에 규정된 경제사업 영역이 ‘농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용품’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¹¹

¹⁰ 1999년 필자의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조사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유통(금액) 중 쌀 83%, 채소 13%가 생협과 유사단체를 통한 직거래였다.(박현태·정은미, 1999년, pp.30-32) 생협법 제정 당시 생협의 관리당국인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비자정책으로서 소비자 물가 안정에 주요 관심이 있었고 1996년 당시 전 조합원 7만명에 불과한 생협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친환경농업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그 유통의 주요한 담당자로 생협 등 소비자단체의 육성을 농정의 목표에 포함시켜 ‘생협법’ 제정을 적극 제안했다. 그러므로 생협법은 재정경제부의 소관이나 생협 등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에 관련된 소비자단체의 대부분은 농림부 소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여하튼 이 시기에 생협은 협동조합이란 법적 근거가 생겨 대외적으로는 신용을 얻게 되어 소비자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또한 조직적으로도 첫 출발은 다양한 이념과 활동에서 시작되는 등 차이가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단협의 운영이나 활동의 차이점은 그다지 크지 않고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소비자운동을 강조하며 서로 협력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학교급식에 국내산이나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체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전국운동, 식품안전법 제정을 추진하는 활동 등에는 모든 생협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생협운동은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운동을 기반으로 생산자는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을 추구하고, 소비자는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한 먹을거리와 협동체에 대한 의식 전환을 지향하는 소비자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생협의 조합원수는 증가하고 경제사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례로서 검토하고자 한다.

¹¹ 생협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0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및 환경친화용품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 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생활 개선 및 교육·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제1호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3. 생협의 현황

2005년말 현재, 전국에는 176개 생협이 존재한다. 종류별로 보면, 구매생협(주요 친환경농산물과 환경물품을 공급하는 사업) 123조합, 대학생협 17조합, 의료생협 27조합, 판매조합 6조합,¹² 직장생협 1조합, 연합체는 9조합이며 그 중 구매연합체가 3조합, 의료연합회가 1조합이 있다. 총 조합원수는 약 34만 명이다(박상신 2006).

이 글에서는 친환경농산물과 생협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구매생협연합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3>은 주요한 구매생협 연합체의 2005년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한살림은 전국 16개의 지역한살림생협, (주)한살림사업연합, 모심과 살림연구소 등 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구입과 개인택배, 60개소의 매장 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과 환경상품을 공급하며, 전국 16개 지역의 조합원수는 115,336명, 2005년 사업실적은 794억원이다.

두레생협연합회(구 수도권사업연합)는 수도권 23개 단협의 연합체로 경제사업은 공동구입과 개인택배, 24개소의 매장운영을 병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수 34,600명, 사업실적은 204억원이다.

한국생협연대(구 생협연대)는 전국 61단협의 연합체이며 무점포, 공동구입, 개인택

¹² 1980년대 농촌지역 소협(신협의 경제사업이 잔존하는 형태)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사업이 주 목적인 농촌지역 생협이다.

표 3. 주요 구매생협 연합체 현황

	(사)한살림 ¹⁾	(사)두레생협연합회 (구 생협수도권연합회) ¹⁾	(사)한국생협연대 ¹⁾
설립연도	1993년	1997년	1998년
조직 구성	· 한살림생협 16개 · (주)한살림사업연합 ²⁾ · 모심과 살림연구소	· 단협: 수도권 23조합 (회원15,준회원8) · 전국 생산자회	· 단협: 전국 61조합 (회원46, 준회원15) · 생산자회: 전국 생산자 12조직, 1350명
사업방식	○공동 구입, 개인택배 ○매장 60 곳	○공동 구입, 개인택배 ○매장 24곳	○공동 구입, 개인택배
조합원수	115,336명	34,600명	18,600명
공급고	794억 원	204억원	601.4억원

주: 1) 생협법에는 연합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단법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2) (주)한살림사업연합은 2002년 3월, 지역조합,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 등 28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각 단체, '2006년 정기총회 자료', 2006.

배 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합원수는 38,000명, 사업실적은 601.4억원이다.

제2절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협은 현재 어느 곳이나 거의 같은 성격의 사업을 전개하며 각 연합체의 성격도 비슷한 면을 지니고 있다. 한국생협연대가 1997년 사업의 기본방침으로 채택한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제4절 참조)는 한살림에도 채택되어 2002년부터 (주)한살림사업연합, 연구소, 생협인 지역한살림으로 분리, 재편되었다.¹³ 또한 지역운동을 지향한 한국생협연대도 한살림과 마찬가지로 전국 친환경농업 생산자를 내부 조직화하였다.¹⁴

¹³ (사)한살림은 2002년 3월 한살림사업연합, 2003년 2월 한살림 생산자 전국 모임, 2004년부터는 지역한살림이 분리하여 재편되었다. '제2차 한살림 정책토론회 자료', 2002년 8월27일, <http://www.hansalim.or.kr/자료실>

¹⁴ 한국생협연대는 2001년에 생산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여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물류조직으로서 재출발했다. (사)생협수도권연합회도 2005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는 현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중심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협은 전문유통업체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생협이 단협 간 연합체를 만들어 조직의 내부결속을 높이거나, 생협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생명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생산자를 조직 내부화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생협의 특징-한국생협연대의 사례-

제2절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한국생협연대가 발족하게 된 계기는 유기농산물이 고가여서 일반 소비자대중이 생협운동에 참가하기 어렵고 소규모 지역생협의 경영난과 활동의 정체로 이어진다는 배경이 있었다. 한국생협연대는 그 주된 원인이 물류
년 전국생산자회를 조직하였다.

표 4. 한국생활협연대의 실적

	생협 수 (신설생협)	실이용 조합원수(명)	공급고(억 원)
1998	8 (2)	633	15.2
1999	9 (1)	1,229	29.4
2000	15 (6)	2,470	53.3
2001	26 (10)	3,330	83.0
2002	35 (9)	7,538	165.0
2003	42 (6)	10,742	285.0
2004	58 (7)	15,359	496.0
2005	61 (15)	16,808	601.4

주: 실이용 조합원수는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수를 말함, 2005년 말 가입조합원수는 32,000명임.
출처: (사)한국생활협연대, 생활협동가 웹사이트 (<http://icoop.or.kr/cug/>공유자료실)

의 비효율성이라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를 시도하여 설립된 지 8년 만에 단협 61조합의 연합체로 성장하였다(표 4).

또한 조직부문 활동을 강화하고 신설된 단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생활협연합회’를 설립하고, 조합원에게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상조회’를 운영하며, 생산자와 계약 재배했으나 무점포 판매만으로는 공급이 남는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소매점으로 도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생활협연대가 전개해 온 사업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생협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한국생활협연대의 조직적 개괄

한국생활협연대는 2005년 현재 전국에 단협 61조합, 조합원수 3만 2천여 명과 1,350명의 생산자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물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단협 물류를 연합체로 통합하고 생산자와 단협

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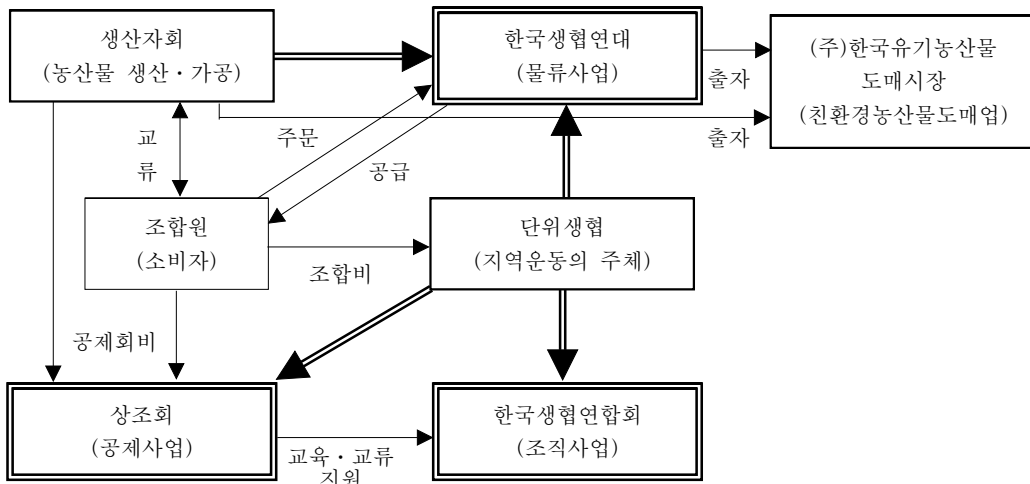
한국생활협연대는 물류정비와 함께 단협의 생활협동운동을 지원할 연합체도 탄생시켰다. 단협만의 조직인 한국생활협연합회는 2002년에 설립되었다. 생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직에 운영 및 경영지도, 조합원 교육 등 지원활동과 단협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로 묶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2003년 설립한 상조회는 조합원, 생산자, 직원의 공제사업이며 공제사업의 자금을 조합원 활동가의 교육, 친환경농산물 구매자금 등 물류사업의 운영자금에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물류사업에서 시작한 단협의 연합체인 한국생활협연대가 조직사업과 공제사업까지 포함한 세 개의 연합체로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생활협연대 조직구성과 연합체의 역할을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4.2. 조직의 기본 방향: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

협동조합이 경영난에 직면한 경우, 주로

그림 2. 한국생협연대 조직도



주: □ 단위생협의 연합체, ⇒ 소속 관계, → 물류, 자금, 지원의 흐름

채택되는 개선방법은 합병이다. 일본과 서구의 경우에도 합병이 일반적인 선택이었다. 그런데 한국생협연대는 ‘합병은 운영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에서는 적절하지만 조합원의 힘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결집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조합 규모가 크면

클수록 조합원의 의견은 지도부와 멀어지게 되고, 조합원의 참가도 낮아지게 되어 어느새 단순한 이용자로 전락되고 만다. 결국, 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협동조합의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조합원의 참가(=이용)은 점차 적어지고 심하면 파산에

표 5. 한국생협연대 구성과 세 연합체의 역할

		역할	주요 활동
한국생협연대	지역생협	· 지역운동의 주체 · 지역커뮤니티운동	· 식품안전활동에 바탕을 둔 조합원 확대 · 자치조직 운영위원회 운영
	생산자회	· 재배, 가공, 생산계획, 품질 관리기준 책정 · 재배기술 연구, 공유	· 지역생협과 생산기준 합의 · 생산정보 공개활동 · 생산자교육
연합체	한국생협연대	·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 · 친환경농업 재배, 가공생산, 전략 수립	· 물류 전국네트워크 구축 · 자회사 설립으로 친환경농산물의 도매사업에 참가
	한국생협연합회	· 지역생협 설립 지원 · 생협운동 지침 제안 · 조합원 교육	· 친환경농산물 소비운동(교육, 홍보, 교류 등) · 산지교류, 업무시스템 표준화 작업 · 협동조합간 협동(국제교류)
	상조회	· 조합원, 직원 공제사업 · 생산안정기금(재해공제)	· 물류사업 자금조달 · 생협활동가 교육 지원 · 친환경농산물 구매자금 조달

출처 : (사)한국생협연대 웹사이트(<http://www.icoop.or.kr>)에서 작성.

이르게 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합병을 추진하지 않았다(한국생협연대 2002, 67).

그 대신,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이다. ‘사업은 규모를 크게 할수록 조합원의 편익이 증대하지만 일정한 범위 즉, 조합원의 자치와 관리능력을 넘는 규모로 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사업은 통합하여 효율을 높이거나 조직은 조합원의 참가와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로 분화하는 조직전략을 펼쳤다(한국생협연대 2002, 68).

4.3. 조합비제도: 사업의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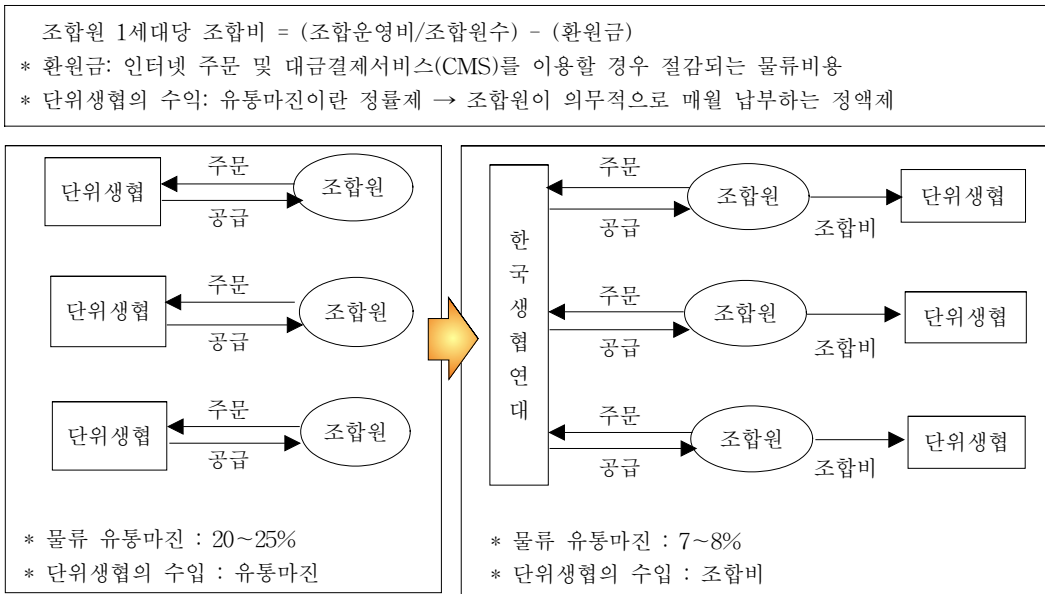
‘조합비’란 단협 운영경비를 조합원이 분담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이용자임과 동시에 단협 경영의 출자자가 되도록 의무화한 시스템이다. 즉, 조합원이 가입 초기에 출자금을 내기만 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

는 것이 아니라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단협의 이용도를 높이고 물류의 집중을 꾀한 것이다. 또한 물류 집중에 의한 규모의 경제로 달성된 효과로서 조합원에게는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조합비는 ‘(조합 운영비/조합원수) - (환원금)’이란 방식으로 산출된다. 단협마다 경영의 차이에 의해 조합비 금액이 서로 다르며 조합원 수가 증가할수록 조합비가 낮아지는 시스템이다. 이 조합비제도에 의해 단협의 각종 조직활동의 재원은 유통마진이란 정률제 수수료에 의한 수익에서 정액제 조합비에 의한 수익으로 바뀌었다(그림3).

조합비제도에 의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과가 나타났다. 첫째, 한국생협연대 회원 조합 조합원 1세대당 월 이용액이 19만6천 원(2004년 현재, 이 제도 실시 이전인 1997

그림 3. 단위생협 경제사업 수익구조의 변화



년은 월 이용액 5만 원)으로 조합원의 생협 이용률이 높아진 것(이용의 집중)이다(한국생협연대 2002, 45). 둘째, 단협은 조합원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라는 안정적인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려웠던 경영난에서 탈출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식품안전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생협연대 2002, 70).

4.4. 조합원에 의한 자치 강화-조직의 분화

한국생협연대는 ‘생협이 유기농산물을 공급하게 된 것은 조합원의 요구인 식품안전 활동의 일환이다. 즉 물류사업이 완성된 생협 본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먹을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 및 그 해결방법 모색, 교육, 홍보활동,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생협연대 2002, 69).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조합원 스스로 단협을 운영·관리하는 자치력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생협의 조직적 운영원리를 습득한 조합원 활동가를 육성하고 있다. 이 활동가들은 단협의 규모가 크게 되었을 때 독립하여 별도의 조직을 조직하는 주체가 되어 조직의 분화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현재 단협마다 물품개발, 홍보, 식품안전, 마을모임 등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전국에서 약 600여 명의 활동가가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전국 4권역 별로 각 위원회 모임이 이루어져 의견교환과 정보교류, 제안 등이 이루어져 각 지역

에서 펼칠 주요한 활동방침을 결정하며 실천하고 있다.¹⁵

예를 들어 단협에 설치된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의 안전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운동,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한 단협 차원의 활동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의 실시, 농림부의 도농교류 사업 수탁, 정부에 정책 제안 등과 같은 연합체 차원의 식품안전위원회 활동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으며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식품안전보장을 위한 법률제정운동과 학교급식에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도입하기 위한 운동은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4.5. 전국 물류망의 온라인 구축과 신설 조합의 설립지원

한국생협연대는 전국 물류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공동물류센터 건설과 물류시스템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물류거점으로는 전국에 6곳의 물류센터, 7곳의 배송센터가 있으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물류의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것이 인터넷의 보급이다. 조합원의 주문, 집계, 생산자에게 발주, 대금결제 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인해 업무비용이 줄어들고 줄어든 비용만큼 조합비를 낮추어 조합원에게 환원 가능하게 되었다.¹⁶

¹⁵ 한국생협연대 활동가정보(<http://www.icoop.or.kr/cug/>)의 내용을 참조.

¹⁶ 2005년 조합원의 인터넷 주문은 총 이용률의 85%이며, CMS(대금자동지급) 이용률은 90%에 이르고 있다.

단협은 물류사업을 한국생협연대에 위탁한 결과, 조직사업에 전념하게 되어 새롭게 생협을 세우고자 하는 주체가 있으면 보다 간단하게 생협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생협연합회는 생협을 세우고자 하는 주체와 상담을 통해 주문시스템과 경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조합원 활동을 지원할 실무자, 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 연수 등을 기획하고 지원한다(한국생협연대 2002, 152-160).

4.6. 취급 물품 기준과 생산자와의 관계

생협의 이념은 취급물품의 선택과 개발 기준에 나타난다. 한국생협연대는 물품 선정 기준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¹⁷ 첫째, 물류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취급 물품 선정은 조합원의 영역으로 남긴다는 점, 둘째는 생협의 물품은 조합원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 물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의 관리, 감독을 생협의 활동으로 정착시킨다는 점, 셋째는 생협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물품을 취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된 물류 개선의 목적은 친환경농산물을 일반 소비자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고 소비확대를 통해서 국내 친환경농업 생산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생협연대는 생협의 이념과 생산 방침을 실천하고 있는 생산자를 다음과 같이 해석

하고 생협운동의 한 축으로 이해하고 있다. 먼저 인증제도로 인정된 결과물(생산물)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생산물의 전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자를 신뢰한다. 그러므로 생산자, 조합원 물품위원, 직원 등 관련된 삼자가 함께 생산지 관리 및 생산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생산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소득 안정이 중요하다. 단순히 품목의 가격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자의 전 생산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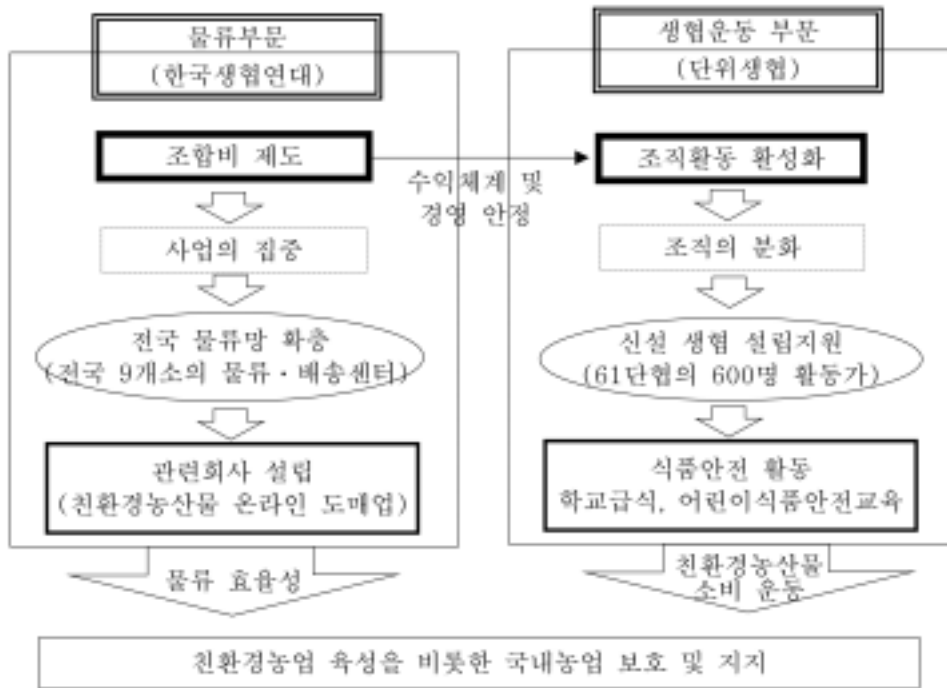
4.7. 경제사업과 조직 활동의 관계

한국생협연대가 추진하는 물류부문(경제사업)과 단협의 운동부문(조직사업)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한국생협연대는 2001년부터 생산자도 참가하는 생산자·소비자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힘쓰고 있다. 2002년에는 자회사인 '우리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소규모 친환경농산물의 전문소매점에 도매업을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온라인도매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⁸

¹⁸ 친환경농산물의 온라인 도매업은 생산물뿐만 아니라 생산과정과 유통과정까지 단체가 직접 인증하여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이다. 거래에는 생협뿐만 아니라 일반소매업자도 참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시도하게 된 계기는 현 가격결정구조에는 항상 수급의 불안정이 존재하며 생산자의 소득 불안정과 생산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생협연대가 직거래활동을 통해서 얻은 생산관리의 경험을 일반소매업으로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안정시키고 점

¹⁷ 한국생협연대 활동가정보(<http://www.icoop.or.kr/cug/>) 공유자료실 2004년 7월 19일, '한국생협연대의 생산 및 물품정책'.

그림 4. 한국생협연대의 경제사업과 생협운동 개념도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생산이 늘어나도 판로 확보가 곤란한 생산자들에게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물류부문에서 한국생협연대가 단협의 물류사업을 통합하고 조합비제도에 의해 단협의 수익이 고정적으로 안정된 덕분에 단협의 조직활동은 활발해졌다. 그 중 전국 600여 명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신설 생협의 설립지원과 함께 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에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급식운동, 어린이들에 대한 식품안전교육

등의 활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생협연대가 물류부문에서 물류의 효율성을 지향하고 생협운동 부문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운동을 펼치는 것은 서로 연동하는 구조이다. 물류부문에서는 단협의 물류사업 통합과 전국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일반소비자도 구입 가능한 가격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며 소비확대를 촉진한다. 그 가격은 생산자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생협운동 부문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운동을 펼침으로서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자 소득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생산자들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보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국내 농업을 지키기 위한

차 확대하기 위한 의도이다. 한국생협연대 활동가정보 <http://www.icoop.or.kr/cug/> 공유자료실 2003년 11월 18일,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도매물류센터 개설'.

활동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국생활협연대의 활동 내용은 생명운동을 기반으로 지역운동에서 태동한 생협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국내 농업을 지키는 운동으로까지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온 과정이기도 하다.

5. 생협운동의 과제

1970, 1980년대 생산자가 주로 담당했던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생협이 중심사업으로 도입함으로써 생협은 생산자와 함께 국내 친환경농업을 지지하며 사회개혁운동을 담당하는 주체로 변화해 왔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옹호와 이익보호라는 소비자운동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과 구미 생협운동의 차원을 넘는 것이며 수입농산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 농업생산자와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협이 성장해 온 배경에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 식량자급률이 급락한 정세, 식탁까지 침투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 그리고 시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직해 온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의 진전이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소비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조직화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 소비양식을 지향하는 생명운동으로 연결한 것이 우리나라 생협의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협이 발전하기 위해

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데 3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협의 장기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제4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생협의 물류조직에는 생산자도 포함되어 있고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농업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생협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협운동 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특수성을 이론화하고 이를 근거로 비전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둘째, 생협의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활동가, 직원 등을 육성, 교육하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발해야 한다. 생협의 활동은 활동가와 직원의 개인적인 실천에서 태동된 것이 많고 그 활동이 지닌 사회적 의의를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심화하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더욱 확산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생협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높아졌으나 생협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인식은 생협 내부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조직의 비전 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인 재교육,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생협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협의 활동을 이해하는 조합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2005년 조합원수 34만 명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 생협에서 자금 부족은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생협의 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한 것이며 출자 확대로 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합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에게 신뢰를 얻

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생협의 조직 원칙인 민주적 운영과 정보 공개 등을 확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운동을 중심 사업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생협이 국내 농업 지원운동으로 발전한 과정과 그 특징을 검토했다. 우리나라 생협이 성장하며 이루어 낸 활동은 친환경농업 생산자의 생활을 보호함으로써 국내농업과 식품안전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생협 물류연합체는 소비자 조합원만이 아니라 생산자를 포함하여 조직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생협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의 슬로건인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구체화 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생협운동은 생명운동, 지역운동, 소비자운동을 넘어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국내농업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운동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참고문헌

陸榮洙·張原碩. 1998. “韓國協同組合の動向と課題.” 『協同組合研究』 17(4).
丸山茂樹. 1999. “韓國の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について.” 『生活協同組合研究』 (4).
———. 2000. “韓國における生協運動の新たな展開: 生協法と環境農業育成法の制定以後.” 『生活協同組合研究』 (5).

———. 2004. “韓國の生協運動の近況-2つの全國組織と今後の展望.” 『生活協同組合研究』 (11).
강수정. 199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의 생활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정희. 2001.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한국 도시지역의 여성운동:수도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1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박상신. 2006. “오늘의 생협을 본다.” 『생활과협동』 72. 생협전국연합회 <http://www.co-op.or.kr>.
박현태·정은미. 1999.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협수도권연합회. 2004. <http://www.ecoop.or.kr/shopping/rule.as>(생활제에 관한 기본 원칙과 취급 기준).
정규호. 1994. “환경문제 심화에 따른 생태적 공동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은미. 1996. “산지 생활협동조합의 유통활동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국생협연대. 2002. 『새로운 생협운동』. 글샘사.
———. 2004. “한국생협연대의 생산 및 물품정책.” 한국생협연대 활동가마당 [http://www.icoop.or.kr/cug/공유자료실\(2004/7/19\)](http://www.icoop.or.kr/cug/공유자료실(2004/7/19)).
한살림. 2002. “제2차 한살림 정책 토론회 자료”. 한살림 <http://www.hansalim.or.kr/> 자료실 2002/8/27.

<p>■ 원고 접수일 : 2006년 5월 8일 원고 심사일 : 2006년 5월 16일 심사 완료일 : 2006년 6월 27일</p>
